

발제자는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제 3 장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중요한 맥락과 핵심 쟁점을 제시하였다. 제 3 장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P102 저자는 '지리적 규모(geographical scale)'를 언급한다. 이는 정치적 행위를 어떠한 공간적 위계에서 관찰하고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지리학의 일반적인 분석 틀이다. 발표자가 결론에서 제시한 탈스케일과 이에 기반한 스케일의 재구성은 지리학적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P104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 를 목표로 사담 후세인에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면적 사찰을 강요했 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에서 '실패'가 구체적으로 무엇의 실패를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P112 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 또는 '기득권적'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시각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말에서 각 나라 전통적, 기득권적 영향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중국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반테러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안보 협력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중국의 반테러 협력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가? 아울러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 역시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P119 에서 소련은 미국에 영토적 도전이라는 말이 이해가 어렵고 발제자는 어떻게 영토적 도전을 이해하는가에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는 영토 중심의 모델을 대신해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알카에다의 사례에서 노드와 링크는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 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거나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발표문에서는 알카에다의 목표가 영토 획득이나 통제권 확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권위에 타격을 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구체적인 영토를 활동 기반으로 활용했고, 장기적으로는 이슬람 정치 질서의 수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탈영토적인 행위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영토적 기반과 정치적 목표를 고려할 때 카에다를 탈영토적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